3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3.5	2.26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68.69	1,168.47	↑ 0.02	↑ 5.87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258.75	6,241.80	↑ 0.27	↑ 4.68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405.32	49,099.99	↑ 2.66	↑ 5.56	25,981.24 '20/03/2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501.99	3,509.08	↓ -0.20	↑ 0.83	2,660.17 '20/03/2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8.60	2,293.69	↑ 0.21	↓ -1.32	1,631.88 '20/03/23	2,468.66 '21/02/19
홍콩	H	11,292.22	11,247.21	↑ 0.40	↑ 5.16	8,559.64 '20/03/19	12,228.63 '21/02/17
	항셍	29,098.29	28,980.21	↑ 0.41	↑ 6.86	21,696.13 '20/03/23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26.26	3,012.95	↑ 0.44	↑ 5.32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3.5	2.26	전주대비(bp)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0	2.39	↑ 0.30	↓ -18.3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69	6.61	↑ 7.90	↑ 80.2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6.23	6.23	↓ -0.30	↑ 36.5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5	3.28	↓ -3.00	↑ 10.3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2.00	1.97	↑ 2.50	↑ 27.30	1.26 '20/03/09	2.00 '21/03/05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3.5	2.26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35.00	23,018.00	↑ 0.07	↓ -0.27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300.00	14,235.00	↑ 0.46	↑ 1.78	13,878.00 '20/06/05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3.03	73.47	↓ -0.60	↓ -0.06	72.33 '21/02/24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50	6.47	↑ 0.36	↓ -0.46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5.68	1,123.53	↑ 0.19	↑ 3.61	1,081.81 '20/12/04	1,285.73 '20/03/19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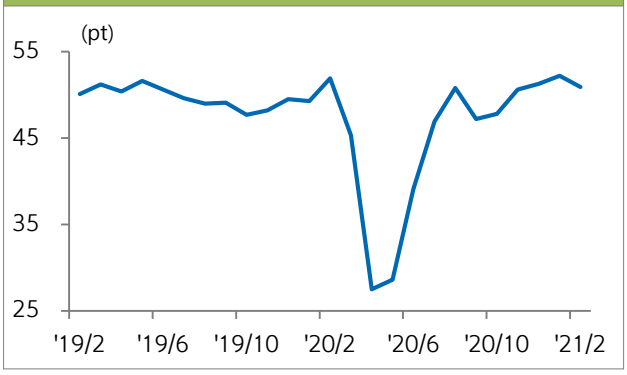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2월에도 확장세 유지. 3월 추가 개선을 기대

- **2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0.9pt를 기록하여 전월에 기록하였던 52.2pt 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50pt를 넘으면서 확장 흐름을 지속하였음.** 1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50pt를 넘는 흐름. 생산과 신규 주문 부문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고용은 하락하였음. 기업 투자 심리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2월에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부문 중심으로 고용 위축이 지속.

- 주요 원자재 수입 국가인 중국의 제조업 PMI는 2월에도 추가 하락. 여전히 50pt를 상회하고 있지만 인민은행이 과잉 유동성을 경계하고 중국 정부도 6% 수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서 부양보다는 다소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發 호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기대를 낮추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신형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향이기에 관련 원자재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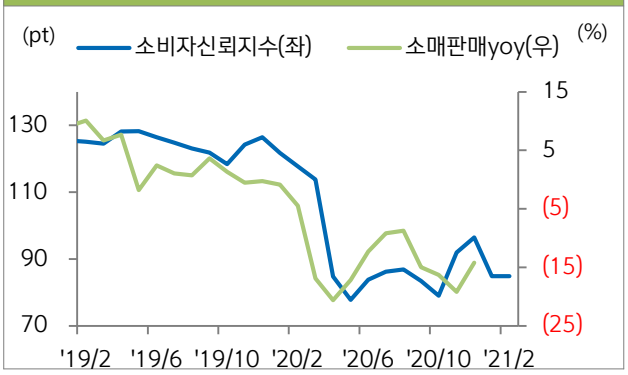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에서도 대규모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시속, 개인 위생 강조 등에 힘입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3월 들어 1일 신규 확진자수가 6천명을 하회하면서 1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던 2월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월 백신 접종 대상을 늘려가면서 연내에 대부분의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1.8억명을 접종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없다면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소비 심리의 개선세가 인도네시아의 성장 반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독려하면서 서비스부문도 점차 개선세를 보이면서 관련 고용도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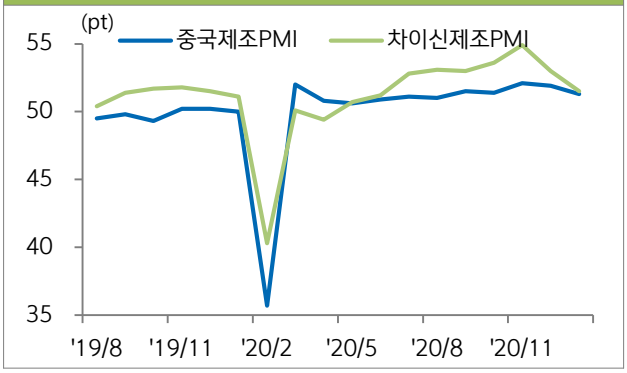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중국 제조업 PMI 추이



자료 : Bloomberg

신규확진자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중앙은행, QRIS(QR결제) 사용처 확대 노력 지속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핀테크 및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QR 결제 시스템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수공예 작품이나 특산품 등을 QR 결제를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순한 거래 뿐만 아니라 관광부흥 및 국내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지 중소기업들과 홍보 및 결제 업무를 연결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있음

- 중앙은행은 2021년 인도네시아 창의 업무 캠페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산 물품 사용 장려 운동(Gernas BBI)와 인도네시아 여행 장려 운동에 있어서 QRIS(QR결제표준)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음. 대면 거래 이외에서도 QRI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출, 저축 및 송금 업무 전반에 걸쳐 QR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밝혔음.
- 총재는 46개 중앙은행 분점, 은행들, 필테크 금융 시스템 협회 및 상거래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QRIS 사용 확대 운동을 벌인다고 하였음. 총재는 Lombok 지역에서 국산물품 장려와 인도네시아 여행 장려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단순히 여행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써만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중소기업들과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의 물품을 e카탈로그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QRIS를 통해서 쉽게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해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현지의 다양한 부처들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이번에 Lombok에서 3/3~3/31 기간 개최되는 Indonesia Creative Work Campaign에서는 사람들이 수공예 작품들을 구입하거나 Lombok 지역의 특산물품들을 인도네시아 창의 작업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열려 있음.

(출처 : Antara News)

경제조정 장관, 아직 국제선을 외국인 관광객에 재개할 계획은 없음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필수 업무 여행을 제외하고 해외 여행객의 방문과 내국인의 해외 방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은 관광 및 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 관광 및 소비를 장려하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음.

-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모든 국제선 항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올해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상호 협약에 근거한 트래블 버블 정도가 열려있는 수준이라고 장관은 설명하였음. 현재 제한된 숫자의 국제선 노선만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영되고 있고 핵심 업무 여행이나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여행만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음.
- 그런 가운데서도 여행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통제될 수 있을 정도의 보건 정책이 갖춰진 범위 내에서는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을 통해 여행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전국 동시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발표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산업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왔음. 국내 여행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다니면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중반까지 7천만 명이 백신접종을 마친다면 관광산업 분야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관광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호텔, 레스토랑, 까페 등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올 1월에 통계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자카르타를 방문한 숫자는 지난해 12월의 21,858명보다 94.3% 줄어든 1,244명에 그쳤음. 작년 1월에 비교했을 때는 99.28%가 줄어든 상태임.

(출처 : Antara News)

중기부, 중소기업 제품의 현대화를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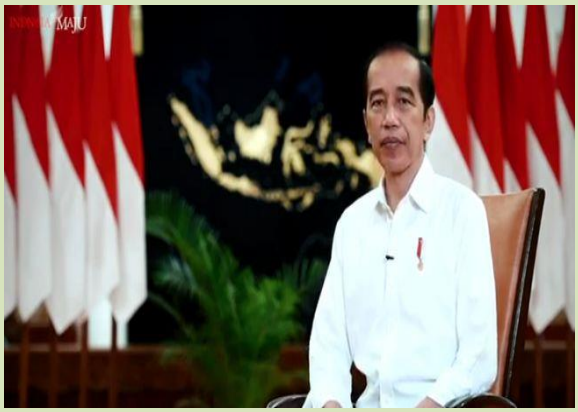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중소기업부 장관은 많은 관광지역들에서 팔리는 수공예품 등 전통 작업에만 의존한 상품 제작 구조를 지닌 중소기업들에게 현지에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접속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대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요청하였음

-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국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상품들을 생산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독려하였음.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전통 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인도네시아산 브랜드를 현대화된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마노 보석, 바틱 등 전통 상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 기반의 상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 중기부 장관은 현재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이든지 전세계 및 대형 시장으로 언제든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인도네시아 상품들의 브랜드를 농업 산출물에 기반한 국가 상품이 아니라 근대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높여갈 수 있다고 하였음.
-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관광지에서 전통 상품을 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적으로 혁신된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정부, 백신 접종과 경제 부양 총력전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을 1,2,3,4단계에 걸쳐 매달 단계를 높이고 있음. 1월 의료진, 2월 시장근로자에 이어 3월부터는 취약지구, 이런 방식으로 연내 1.8억 명 가량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행중임. 여기에 발맞춰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이 재개될 때 빠르게 구매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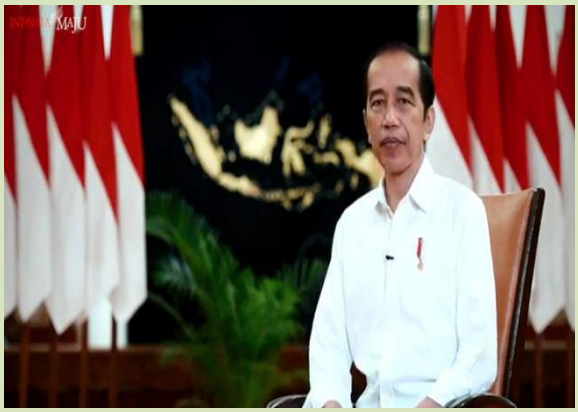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회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음. 경제 활동 속도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번주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험해봐야 할 지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였음.
- 3/1부터 정부는 일단 21 종류의 신규 차량에 대해서 현행 부가가치세와 사치세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중앙은행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시행할 때 LTV를 완화하였음. 주택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 재무부는 올해 8/31까지 구매하는 50억 루피아 규모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50~100% 면제하기로 하였음.
- 지난 십여 년간 이뤄졌던 여러 회복 조치들을 고려할 때, 차량 생산 및 차량 부품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가 경제 활동을 견인할 중요한 산업 부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제조업 부문이 GDP 대비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업 부문은 GDP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멘트, 철강, 페인트, 가구 등 174개 연관 산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 파급 효과도 큰 편임.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2개의 업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승수 효과를 감안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원에 나섰음.
- 경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제 3.5% 까지 낮추어서 2016년 4월 현행 기준금리 체계로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자금시장에서 운영되는 금리를 낮추고 이를 통해 은행 및 자본시장의 금리를 낮추어 생산과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2020년에 둔화된 경제활동을 반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지난해에도 이러한 완화는 지속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더 우선시 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었음. 민간이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케인지안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수요와 소비의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임

(뒷면 계속)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와중에 공적 지출 부분이 그나마 시장의 심리와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된다면 공공 지출 부문이 민간의 소비를 자극해줄 여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더 악화된다면 소비가 제한되고 성장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게 됨.
-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이 경제에 있어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접종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정상화가 달려있음. 대통령은 1년 이내에 1억 8,150만명의 접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건부에서는 15개월 이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현재 150만명의 보건 관련 직원들이 1단계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고 나서 정부는 서비스 부문 직원들과 시장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함. 2단계 접종 대상 인원은 1,740만 명이며 쇼핑센터 근무자, 호텔, 레스토랑, 여행 목적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임. 2/17부터 2단계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2단계 시작일에는 중부 자카르타 Tanah Abang 도매시장 근무자들이 접종을 하였고 조코위 대통령이 참관하였음. 대통령은 3/1에는 족자카르타 지역 Beringharjo 시장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는 곳에도 참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에 3단계 대규모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취약 지구에 거주하는 6,3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4월에는 4단계 접종을 시작하며 7,720만명의 백신 접종을 시작함.
- 정부는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상호간 협력을 하도록 하였고 사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인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대신에 독립 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회사는 예정 일정보다 빠르게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음.
- 국가 백신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직원들에 대한 독립 백신 접종은 개별 회사나 사업체, 법률단체 등에 의해서 관련 자금을 지원함. 정부는 독립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정부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음. 상호간 접종 협력이 기업을 통해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임.
- 백신 접종과 별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규모 검진 및 추적 검사,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음. 이러한 정부에 발맞춰 개인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공공 장소에서의 거리두기, 비누로 손씻기 등의 보건 지침도 강조되고 있음.
- 빠른 백신 접종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조치 등이 경제 회복을 촉진해 줄 수는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전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확신하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대통령,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대통령은 무역 관련 정책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 투자를 받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란 태도로 관련 정책 당국자들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2021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음. 국가 부채를 막연히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을 통해 최대한 투자 및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대통령은 투자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무역 정책들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부문이 투자 유치가 필요한지, 어느 부분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도 주문하였음.
-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젊은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면서 실업자로 지내는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만 5%대 성장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정책들을 개선해 내야 한다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말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정부, 금괴 취급 은행 설립 검토 中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금광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 수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관리할 금괴 취급 은행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제장관의 발언이 나왔음. 금 시장의 수급을 관리하여 국내외 가격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금 수출과 관련한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검토임

-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최대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귀금속 관리를 위한 금괴 취급 은행의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금광을 가지고 있지만, 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금 수입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금 관련 수출은 2020년에 52.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장관은 금괴 취급 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금괴 취급 은행을 설립하면 대해서 장관은 환율 관리에 도움이 되고, 산업부문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줄 수 있으며, 은행들의 취급 상품 다변화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금 관련 저축을 할 수 있는 효익이 있다고 말하였음.
- 파푸아 지역에 있는 Grasberg 광산은 남아공의 South Deep 광산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금광이며, 3,020만 온스의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7번째로 큰 금 생산 국가로 2020년에는 130톤(459만온스)의 금을 생산하였음. 인도네시아의 광업기업인 PT ANTAM이 2020년에 1.7톤의 금을 생산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금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리테일용으로 17만 2,800 온스를 사용하였고, 금속 공예품 제작에 13만 7,600 온스가 사용되었음.
-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금괴 취급 은행 설립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